



매주 월요일 만나는 미국주식

- 비자,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시기 / 앤티그룹 IPO 에 대한 모든 것

장기전략리서치부
선진국팀

20년 하반기 미국주식 View

- [투자환경]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재정정책 모멘텀을 바탕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지속. 다만 미국 대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미중 갈등 고조 등 불확실성에 대한 긴장감은 유지될 전망
- [투자전략] 변동성이 크지 않을 종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확실한 카드 선택. 비대면 인프라(클라우드, 데이터센터, 5G)와 소비(일상속 가벼운 소비, 보복 소비)에 집중

이번주 리뷰

- 애플, 테슬라 주식분할 단행(각각 4:1, 5:1). VIX 급등(32.6), 기술주 급락
- [섹터] 주간 수익률 Top 3(▲): IT, 커뮤니케이션, 금융 / Bottom 3(▼): 에너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 [종목] 주간 수익률 Top 3(▲): 세일즈포스, 테슬라, 애보트 래버러토리 / Bottom 3(▼): 코티, 엑슨모빌, 뉴몬트 골드코프

다음주 전망&이슈

- [미국주식 포커스] 비자, 추가 부양책 합의가 필요한 시기
- [이슈 포커스] 앤티그룹 IPO에 대한 모든 것

미국주식 유망 포트폴리오(2H)

종목명	티커	투자포인트	EPS	P/E	수익률 (%)			추천 이후	추천일
			(12M Fwd)	1W	1M	YTD			
엔비디아(NVIDIA)	NVDA	GPU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외형 성장과 실적 개선이 지속될 전망	10.4	50.2	3.1	18.2	121.3	156.7	20.03.18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FT	코로나 19 이후 재택근무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대 가속화	6.7	32.5	-4.1	0.4	37.8	34.7	20.01.10
아메리칸 타워(American Tower)	AMT	전세계 5G 인프라 투자 지속, 안정적인 임대수익 구조 보유	4.7	53.7	1.8	-1.7	9.8	-4.5	20.07.06
이퀴닉스(Equinix)	EQIX	데이터센터 간 인프라와 상호 연결 서비스 수요 증가	7.9	96.5	-3.4	-2.1	30.6	6.1	20.07.06
비자(Visa)	V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	5.8	35.9	-1.0	9.6	11.2	6.8	20.07.06
스타벅스(Starbucks)	SBUX	디지털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전환, 중국 내 1위 커피브랜드로 입지 강화	2.7	32.2	3.7	14.5	-1.6	12.5	20.05.01
TJX 컴퍼니즈(TJX Companies)	TJX	억눌렸던 외부활동 욕구가 쇼핑과 보복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	1.7	32.0	3.5	7.0	-9.1	7.3	20.07.06

주: 2020.9.3 기준, 편입/편출은 8p 참조
자료: 블룸버그,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lobal Strategist 이영한
yeonghan.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유지. 단기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

- 비자(Visa, V)에 대한 투자의견을 Buy로 유지하지만, 단기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비자의 주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이는 금융시장 전반의 낙관적인 투자 심리 확산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 단기적으로 주가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미국 소비시장이 재차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미국 소비 시장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가 지연될수록 소비심리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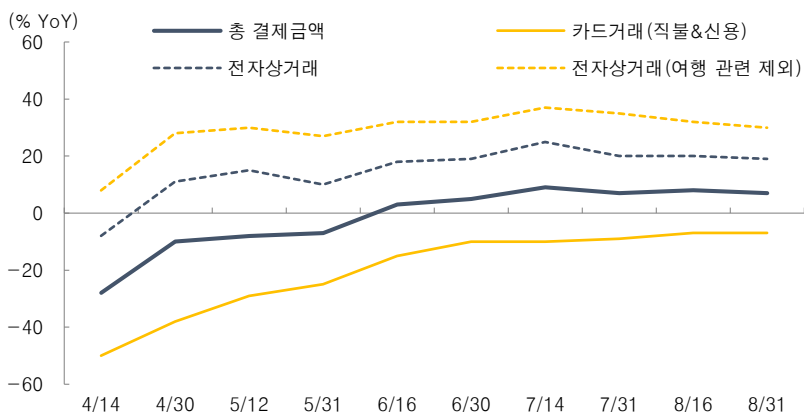
미국 내 결제금액이 전년 수준을 회복한 점은 긍정적이나, 7월 이후 개선 속도 정체

- 비자의 미국 내 결제금액 증가율(% YoY): 6월 +5% → 7월 +8% → 8월 +7%
- 카드거래(직불과 신용카드 포함)를 통한 결제금액 증가율(% YoY)은 4월 -50%에서 8월 -7%까지 회복(직불카드: 7월 +26% → 8월 +24% vs. 신용카드: 7월 -8% → 8월 -8%). 카드거래를 통한 결제금액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해야 소비 시장에 유의미한 신호로 해석
- 해외여행 관련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 8월 비자의 미국 내 여행 관련 결제금액과 전세계 항공 노선 운항 편수 증가율은 각각 -70% YoY, -47% YoY 기록. 여행 관련 결제를 제외한 비자의 전자상거래는 8월(+15% YoY)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실적 하방을 지지
- 다만 7월 말부로 정부의 실업지원금 지급이 만료되면서 비자의 결제금액 개선 속도가 정체된 모습. 미국 소비 모멘텀이 유지되기 위해선 추가 보조금/실업급여 지급이 필요한 시기

코로나 19 영향에도 영업현금흐름 안정. 주가 수준과 배당 증액은 매력적

- 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둔화(-16.3% QoQ)에도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창출(30억 달러 순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수준과 배당 증액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

비자의 미국 내 결제금액 증가율; 개선세 유지되고 있지만, 7월 들어 속도는 저하



자료: 비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lobal Strategist 허지수
jisu.heo@daishin.com

엔트그룹은 연내 홍콩과 상해 STAR board(커창판) 교차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IPO를 통해 약 300억달러 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전망이다(엔트그룹 기업가치 평가는 2,000~3,000억달러 예상). 2004년 알리바바 지급결제 플랫폼으로 탄생한 엔트그룹은 오늘날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광범위한 중국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IPO에 대한 여러가지 시사점을 짚어보려 한다.

■ Q. 왜 미국이 아닌 중국에 상장하는가?

미중 패권경쟁이 강화되면서 미국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ADR)을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5월 20일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외국기업책임법’에 따르면, 미국증시에 상장하려는 외국기업은 ① 외국정부의 소유 및 통제권에 있지 않아야 하고 ②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감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3년 이상 회피 시 거래 중지).

지금까지는 많은 중국 기업들이 월가 자본의 힘을 빌려왔다. 미국만이 갖고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대주주 지배권 강화), 미국증시에 상장했을 때 통상적으로 얻게 되는 벨류에이션 프리미엄 효과로 200개가 넘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했다. 중국 ADR 합산 시가총액은 1.8조달러로 미국 증시의 4.3%, 중국 증시(상해+선전)의 24%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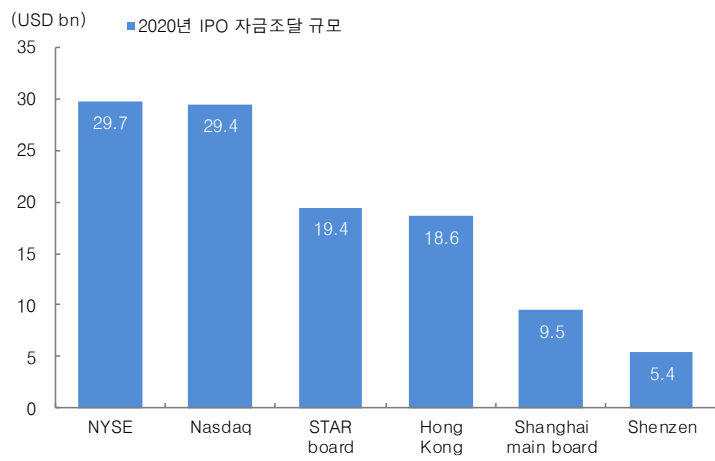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18년 3월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이후 대규모 2차상장이 일어난 것이다. 알리바바, 징둥닷컴, 넷이즈가 홍콩에 2차상장을 했으며 바이두, 핀둬둬도 연내 계획 중이다. 또한 중국판 나스닥이라 불리는 상해 STAR board 역시 중국 테크 신생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중국 자본시장으로 향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고 있다. 엔트그룹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중국 본토와 가까운 곳에 상장하기로 했으며,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월가의 힘을 빌릴 수 없기에 홍콩과 상해에 교차상장을 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자금을 끌어오려는 것이다.

■ Q. 실질적 경영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

알리바바 마윈 전 회장이다. 엔트그룹 지분은 알리바바(32.6%), Hangzhou Yunbo(50.5%), 역내 투자자(16.8%)로 나뉜다. Hangzhou Yunbo는 마윈을 포함한 알리바바 경영진 파트너가 운영하는 투자회사로, 엔트 파이낸셜에 대한 지분 50.2% 중 34%를 마윈이 가져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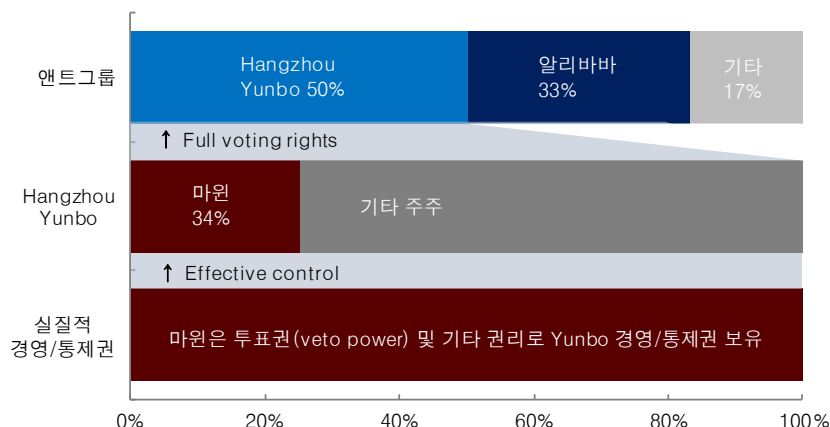
이러한 지분구조의 시사점은, ①엔트그룹은 공개상장 이후에도 극히 일부만이 일반 외국인 투자자에 개방되며, ②마윈 전 회장이 실질적 경영권을 지닌 만큼 알리바바 그룹 생태계 내 장기적 시너지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중 대형 기술주들의 2차상장으로 글로벌 IPO 시장 Top 3 반열에 오른 STAR board



주: 2020년 8월말 기준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앤티그룹 실질적 지배권은 알리바바 마윈 전 회장이 보유



자료: 앤티그룹, The Economis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Q. 알리바바와의 시너지 효과는?

알리바바가 보유한 데이터는 앤티그룹의 소비자 신용평가 기반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금융산업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다. 대출이든 보험상품이든 신용도에 따른 적합한 상품 설계가 중요하다. 앤티그룹은 회원들의 인터넷 구매 및 신용카드 결제 이력, 공공요금 상환 이력, 자산관리 이력, 교우관계, 행동 특성 등 기초정보를 수집해 개인의 신용도를 수치화하고 있다. 이러한 ‘즈마 스코어’를 신용 소액대출 여신 범위를 설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사용한다.

알리바바에는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여행(호텔, 항공 좌석 등급), 오프라인 스토어 방문, 엔터테인먼트, 네비게이션 등 소비자 일상 전반을 둘러싼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앤티그룹의 즈마 스코어 기반 데이터를 더욱 정교화하고 금융상품 설계 및 판매 효율성을 높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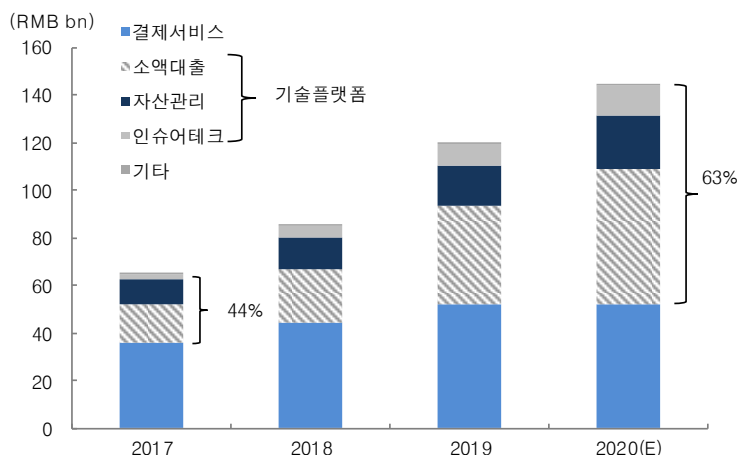
■ Q. 사명을 기존 앤트파이낸셜에서 앤트그룹(중국어명; 앤트과기그룹)으로 변경한 이유는?

금융(Fin)보다 기술(Tech)에 방점을 두기 위함이다. ‘금융’에 해당하는 결제서비스(알리페이)는 수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①텐센트와의 경쟁 심화, ②금융당국의 규제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텐센트는 중국 최대 메신저인 QQ를 기반으로 간편결제/송금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알리페이의 모바일결제 시장 점유율은 ‘15년 1분기 75%에서 현재 55%로 하락했다(텐센트 점유율 11% → 39%).

결제서비스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위어바오의 입지도 위축되고 있다. 위어바오는 알리페이 현금 잔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터넷 머니마켓펀드(MMF) 상품이다. 한때 정기예금을 웃도는 6%의 수익률과 모바일 투자 편의성을 기반으로 중국 재테크 시장을 평정했으나, 이에 위협을 느낀 금융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1인당 최대 예치금액을 10만원안으로 제한하면서 운용자금 규모가 감소했고, 더불어 시장금리 자유화로 투자수익률이 저조해지자 고객들은 발길을 돌렸다.

반면 앤티그룹의 기술서비스 플랫폼은 나날이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앤티그룹 플랫폼은 외부 금융기업들이 대출, 투자,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 쇼핑몰이다. 협력을 맺은 금융기업들의 대출을 중개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앤티그룹이 플랫폼에서 대출을 실시하면 그 대출 자금 협력을 맺은 상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수수료만 지불하면 앤티그룹 플랫폼의 거대한 고객층에 접근할 수 있고, 자동 매칭은 물론 정교한 신용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채널로서 앤티그룹을 택할 유인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앤티그룹 사업부별 매출; 기술플랫폼이 주력 사업으로 등장



자료: 앤티그룹,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Q. 앤티그룹의 성장 동력은?

단연 기술플랫폼이다. 앤티그룹의 대출 및 상품판매 증대 업무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소액대출 사업부인 CreditTech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CreditTech 매출액은 41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6% 성장하며 전사 실적을 견인했다. CreditTech는 소비자 대출과 중소기업(SMB) 대출로 나뉘는데, 중국 전체 SMB 소액대출 시장규모는 '19년 6조위안에서 '25년 26조위안으로 연평균 2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어 성장성이 가장 돋보일 전망이다.

핀테크 자산관리 시장도 성장여력이 높다. 중국인들의 개인 투자자산에서 현금 및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미국(12%) 대비 현저히 높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펀드슈퍼마켓 등 온라인 금융상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19년 중국 금융상품 AUM 온라인 점유율 15%). 앤티그룹은 인베스코, 뱅가드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경쟁력있는 상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 AUM에 대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파트너사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①글로벌 사업 확장(알리 익스프레스 등 알리바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해외사업 확장/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해외 결제 증가), ②혁신기술 개발(BASIC; Block Chain, AI, Security, IoT, Computing)을 통한 서비스 강화로 장기성장 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 Q. 항셱테크지수 편입 가능성은?

홍콩 상장 직후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항셱테크지수(HSTECH)는 분기별로 평가가 이뤄지고 홍콩증시에 상장되는 대형 기술주는 특정 요건만 부합하면 신속편입 규칙에 따라 곧바로 구성종목이 된다. 앤티그룹 기업 가치를 3,000억달러로 가정하면 항셱테크지수에서 9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18년 편입에서 1,500억달러 가치로 평가받은지 단 2년만에 예상 평가금액이 두 배로 훌쩍 뛰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가치평가에 더 큰 기대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앤티그룹의 항셱테크지수 편입 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자금 유입으로 수급 측면에서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앤티그룹 부문별 플랫폼 규모 및 파트너사 현황

(단위: RMB bn)

서비스	앤티 플랫폼 규모	파트너 금융기관 개수	시장 순위
CreditTech (대출금액)	2,154	~100개 은행	1
소비자금융	1,732		
중소기업	422		
InvestmentTech (AUM)	4,099	~170개 자산운용사	1
InsureTech (보험 프리미엄)	52	~90개 보험사	1

주: 소비자금융 및 중소기업(SMB) 대출은 Mybank(앤티그룹 인터넷은행 자회사)의 대출잔액 포함
 자료: 앤티그룹,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주식 유망 포트폴리오 뉴스&이슈

News Headline

미국증시

- [9/1] 中 정부의 기술수출 규제에 틱톡 매각 급제동. 수출 금지 목록에는 빅데이터,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이 어려워진 상황
- [9/2] 美 나바로 국장, 위챗과 틱톡 외 중국 앱 제재 가능
- [9/4] 트럼프 대통령, 대선 이틀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준비 완료할 것을 요구
- [9/4] 美 내년 정부부채 GDP 추월 예상,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 [9/4] 파우치 연구소장, 오는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 완료 어려울 가능성 높아
- [9/5] 트럼프 행정부, 중국 파운드리 SMIC를 블랙리스트에 편입 고려

미국기업 (유망 포트폴리오 중심)

- 테슬라(TSLA) / S&P500 편입 실패, 시간외 7.5% 급락
- 알파벳(GOOG) / 구글쇼핑, UPS가 운영하는 풀필먼트 솔루션 Ware2Go와 파트너십 구축
- 마이크로소프트(MSFT) / 美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 MS 낙찰 확정
- 아마존(AMZN) / 프라임 에어 드론 배송 미 FAA 허가 획득
- 애플(AAPL) / 페이스북 포함한 광고업체들 불만 제기로 iOS14 개인정보보호 내년초로 연기
- 월마트(WMT) / Bare Necessities에 이어 Shoes.com도 매각
- 페이팔(PYPL) / 단기 할부 기능인 Pay in 4를 4Q20에 출시 추진. Affirm, Afterpay와 경쟁
- 애플(AAPL) / 국내 은행권들 Apple Pay, Card 도입 논의
- 브로드컴(AVGO) / 3분기 반도체 매출 42.2억달러(-4% YoY), 소프트웨어 16억달러(+41% YoY). 클라우드·통신 부문 강세, 소프트웨어 견조한 실적으로 시장 예상치 상회
- 시에나(CIEN) / 3분기 매출액 9.8억달러(+1.7% YoY). 통상적으로 4분기는 성수기임에도 가이던스로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 제시, 광학제품 매출은 전년과 유사 또는 감소 전망

∞ Appendix 1) 미국증시 섹터 주요지표(EPS 컨센서스 변화)

	EPS 컨센서스 변화(24주)			영업이익(십억달러)				주가 성과(%)			12개월 P/E Ratio(배)	
	2020E	2021E	12M Fwd	1Q20	2Q20	3Q20	4Q20	1W	1M	12M	현재	*최근 3년 Level
S&P 500				410.5	320.0	395.1	438.3	2.9	7.6	21.5	22.1	
에너지				9.7	-7.8	2.3	6.0	-1.3	-6.0	-34.8	46.1	
소재				10.4	9.9	11.1	11.7	1.6	1.3	15.2	21.5	
산업재				27.2	9.9	19.0	27.8	2.4	8.0	6.8	24.2	
자본재				20.2	14.2	18.8	21.9	2.3	5.7	2.7	21.2	
상업/전문서비스				2.4	2.2	2.5	2.6	1.7	5.6	13.8	28.7	
운송				4.6	-6.5	-2.3	3.3	2.9	16.3	17.3	36.3	
경기소비재				29.0	-4.9	26.3	29.1	2.9	10.0	35.1	36.7	
자동차/부품				1.9	-8.3	4.0	2.3	1.7	6.5	-11.2	13.6	
내구소비재/의류				3.5	0.9	4.8	6.3	1.9	9.5	19.0	21.0	
소비자 서비스				4.4	-4.4	-0.4	1.5	4.1	10.3	-11.7	64.9	
소매(유통)				19.3	6.8	17.9	19.1	2.9	10.2	56.2	40.0	
필수소비재				32.9	31.5	34.5	35.0	1.7	4.3	8.3	20.8	
식품소매				9.1	7.4	7.5	7.4	2.8	4.8	14.2	22.6	
음식료/담배				17.3	18.8	19.7	19.7	1.5	2.0	3.1	18.3	
생활용품				6.5	5.4	7.2	7.9	1.2	8.2	13.6	25.6	
건강관리				67.8	65.3	69.2	71.5	0.9	1.6	21.7	16.4	
의료장비/서비스				29.7	29.2	26.9	28.5	1.6	2.8	20.1	19.4	
제약/바이오				38.1	36.1	42.3	43.0	0.3	0.6	23.0	14.4	
금융				85.1	81.9	79.2	78.6	3.6	4.8	-3.4	14.0	
은행				46.6	47.1	41.9	40.8	4.5	4.5	-13.9	12.6	
다각화금융				26.3	26.1	26.0	25.5	3.6	6.8	9.7	17.5	
보험				12.2	8.7	11.4	12.3	1.9	0.8	-9.2	11.1	
IT				75.6	73.9	82.0	102.6	4.8	14.0	56.7	26.0	
소프트웨어				37.1	38.6	39.6	44.9	5.7	10.9	42.9	30.4	
IT하드웨어				21.2	18.6	23.2	37.6	4.7	23.2	92.0	24.9	
반도체				17.4	16.7	19.1	20.2	2.0	8.9	51.4	19.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48.5	40.0	44.2	50.9	4.1	10.2	27.8	22.7	
통신서비스				18.4	17.6	18.2	17.1	0.7	4.3	-2.3	11.7	
미디어&엔터테인먼트				30.1	22.4	26.0	33.8	4.8	11.4	36.0	28.3	
유틸리티				18.2	15.7	21.3	18.1	-0.8	-1.6	-5.4	18.3	

주 1: *최근 3년 동안 최고 P/E와 최저 P/E에서 현재 P/E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예) ▨ :<=20%, ▨▨ :20~40%, ▨▨▨ :40~60%, ▨▨▨▨ :60~80%, ▨▨▨▨▨ :>80%

기준일: 2020.9.3

자료: 뚝스루이더,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ppendix 2) 미국주식 유니버스 50 주요 투자지표

대분류	섹터	중분류	종목명	티커	시가총액 (USDbn)	매출액		영업이익		12M Fwd P/E (배)			
						2019 (USDbn)	2020E	2019 성장률(% yoy)	2020E		2019 (USDbn)	2020E	2019 성장률(% yoy)
에너지	정유	엑슨모빌	XOM	165	255.6	180.9	-8.5	-29.2	11.5	0.8	-44.7	-93.3	35.1
		쉐브론	CVX	154	140.2	101.8	-11.7	-27.3	3.1	1.7	-80.0	-44.7	38.8
소재	화학	DuPont de Nemours	DD	43	21.5	20.1	-4.8	-6.7	-0.1	3.6	적전	흑전	17.2
		다우 케미칼	DOW	36	43.0	36.3	-13.4	-15.5	-0.9	1.8	적전	흑전	26.9
	철강	뉴몬트 골드코프	NEM	53	9.7	11.5	34.3	18.2	3.7	3.2	392.0	-14.1	18.8
		뉴코	NUE	14	22.6	19.3	-9.9	-14.6	1.9	1.2	-42.6	-37.9	17.5
	태양광	Daqo	DQ	1	0.4	0.7	16.7	94.3	0.1	0.2	-37.5	280.0	6.5
산업재	자본재	보잉	BA	95	84.8	62.1	-16.1	-26.8	-2.0	-5.0	적전	적지	260.7
		록히드 마틴	LMT	108	59.8	64.6	11.3	8.0	8.6	8.6	16.6	0.2	14.8
		캐터필러	CAT	79	53.8	41.6	-1.7	-22.8	8.3	4.3	0.0	-48.5	21.8
		운송	UPS	UPS	136	74.1	80.7	3.1	8.9	7.8	7.4	11.1	-4.6
경기소비재	소매(유통)	아마존닷컴	AMZN	1,687	280.5	367.9	20.5	31.2	14.5	20.4	17.1	40.4	82.4
	내구소비재/의류	나이키	NKE	176	37.4	39.2	-4.4	4.8	2.7	4.3	-43.2	59.4	42.3
	자동차/부품	테슬라	TSLA	379	24.6	29.7	14.5	20.9	-0.1	2.7	적지	흑전	150.0
		제너럴 모터스	GM	42	137.2	118.5	-6.7	-13.6	5.5	5.0	23.1	-8.2	7.6
		소비자 서비스	맥도날드	MCD	159	21.1	19.1	0.2	-9.6	9.1	6.9	2.8	-23.6
필수소비재	식품소매	월마트	WMT	410	524.0	549.7	1.9	4.9	20.6	22.8	19.9	10.7	26.3
		US 푸드	USFD	5	25.9	23.3	7.3	-10.1	0.7	0.4	6.1	-41.4	21.3
	생활용품	P&G	PG	344	67.7	70.1	1.3	3.6	5.8	15.5	-56.3	166.0	25.2
		에스티 로더	EL	79	14.9	14.3	8.6	-3.6	2.3	2.3	12.7	-2.2	42.2
		코티	COTY	3	6.3	7.2	-8.0	13.7	-3.7	0.5	적지	흑전	27.5
	음식료/담배	펄시	PEP	193	67.2	68.0	3.9	1.2	10.3	10.3	1.8	-0.3	24.0
		필립 모리스	PM	124	29.8	28.5	0.6	-4.4	10.5	11.4	-7.5	8.3	14.5
	몬덜리즈	MDLZ	83	25.9	26.2	-0.3	1.3	3.8	4.3	21.1	12.8	21.0	
건강관리	제약/바이오	존슨앤드존슨	JNJ	394	82.1	80.6	0.6	-1.8	17.3	23.5	-3.7	35.5	17.1
		머크	MRK	216	46.8	48.0	10.8	2.5	11.6	16.8	39.8	45.0	13.8
		화이자	PFE	202	51.8	49.5	-3.5	-4.3	18.7	19.0	53.0	1.4	11.2
	의료장비/서비스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UNH	301	242.2	255.7	7.0	5.6	19.7	22.1	13.6	12.2	17.6
		애보트 래버러토리	ABT	187	31.9	33.0	4.3	3.4	4.5	7.3	28.4	62.4	27.4
금융	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	JPM	309	116.1	113.3	-2.1	-2.5	36.4	17.7	12.2	-51.3	12.6
		뱅크오브아메리카	BAC	222	86.5	85.9	-5.9	-0.6	27.4	13.9	-2.6	-49.4	12.9
	증권	찰스슈왈	SCHW	46	11.8	10.1	7.3	-14.5	4.9	3.9	6.4	-20.4	18.4
	보험	올스테이트	ALL	29	44.7	36.2	12.3	-19.1	6.1	5.5	131.6	-9.0	7.8
IT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MSFT	1,644	125.8	141.5	14.0	12.4	42.9	52.6	22.6	22.4	32.5
		비자	V	445	23.0	21.8	11.5	-5.4	15.0	14.1	15.8	-6.3	35.9
		세일즈포스닷컴	CRM	241	17.1	20.8	28.8	21.6	0.3	3.6	-44.4	1110.0	70.7
	IT하드웨어	IBM	IBM	111	77.2	74.0	-3.1	-4.1	10.2	11.1	-10.3	9.2	10.4
		애플	AAPL	2,067	260.2	273.3	-2.0	5.1	63.9	66.1	-9.8	3.3	31.3
		시스코 시스템즈	CSCO	173	60.1	53.3	2.3	-11.4	2.3	1.7	0.0	-27.0	13.1
	반도체	인텔	INTC	214	72.0	75.1	1.6	4.4	22.0	24.2	-5.5	9.8	10.6
		엔비디아	NVDA	321	10.9	15.8	-6.8	44.4	2.9	6.3	-25.0	120.0	50.2
		브로드컴	AVGO	142	22.6	23.6	8.4	4.3	3.4	12.5	-31.6	261.9	14.5
		퀄컴	QCOM	131	19.6	21.1	-13.4	7.8	7.5	5.6	1269.1	-25.8	18.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미디어&엔터	알파벳	GOOGL	1,112	161.9	173.1	18.3	6.9	34.2	32.9	24.4	-3.9	30.4
		페이스북	FB	829	70.7	80.1	26.6	13.3	24.0	27.1	-3.7	13.0	30.4
		월트디즈니	DIS	241	69.6	65.1	17.1	-6.4	14.5	6.8	-2.6	-53.2	49.5
		넷플릭스	NFLX	232	20.2	24.9	27.7	23.4	2.6	4.2	61.5	62.3	64.6
		통신서비스	액티비전 블리자드	ATVI	62	6.5	7.9	-13.5	21.1	1.6	3.2	-17.4	96.9
		AT&T	T	211	181.2	169.6	6.1	-6.4	28.0	31.8	3.9	13.7	9.2
유틸리티		넥스트에라 에너지	NEE	137	19.2	20.0	14.8	4.0	5.4	6.5	-34.8	21.5	29.0

기준일: 2020.9.3

주: 은행주는 영업이익 대신 당기순이익 표기

자료: 톰슨로이터,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Appendix 3) 미국주식 포트폴리오 History

신규편입 종목명	티커	편입사유	편입일	편출일
아마존	AMZN	고마진인 아마존 웹 서비스(AWS,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확대로 매출, 수익성 개선 기대	20.01.10	20.07.06
애보트 래버러토리	ABT	헬스케어 산업의 구조적 성장 속 체외진단과 심장치료 분야에서 경쟁우위 확보	20.01.10	20.03.18
마이크로소프트	MSF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분야의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시장 내 점유율 확대	20.01.10	
비자	V	전자결제 전 세계적 확산 속, M&A를 통해 세계 전자결제시장에서 영향력 확대	20.01.10	20.03.18
알파벳	GOOGL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영향력 확대	20.01.10	20.03.18
월트디즈니	DIS	연속적인 콘텐츠(영화) 흥행,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반으로 실적개선 기대	20.01.10	20.03.18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UNH	바이든 후보 약진에 '오바마케어' 부활 기대	20.01.10	20.03.18
애플	AAPL	아이폰 매출 수요 견조, 서비스/콘텐츠 부문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20.03.18	20.05.01
엔비디아	NVDA	하이퍼스케일 서버 시장의 수요 회복으로 GPU 출하량 반등 예상	20.03.18	20.05.01
록히드마틴	LMT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의지 재확인. 우주 개발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	20.03.18	20.07.06
머크	MRK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고성장세 지속. 핵심 사업인 항암제, 백신에 주력할 계획	20.03.18	20.07.06
펩시코	PEP	배당성장 매력, 에너지드링크 시장으로 포트폴리오 확대	20.03.18	20.07.06
스타벅스	SBUX	단계적 경제 재개로 실적 정상화 기대	20.05.01	
아메리칸 타워	AMT	전세계 5G 인프라 투자 지속, 안정적인 임대수익 구조 보유	20.07.06	
이퀴닉스	EQIX	데이터센터 간 인프라와 상호 연결 서비스 수요 증가	20.07.06	
비자	V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	20.07.06	
TJX 컴퍼니즈	TJX	억눌렸던 외부활동 욕구가 쇼핑과 보복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	20.07.06	

신규편출 종목명	티커	편출사유	편입일	편출일
애보트 래버러토리	ABT	조정 폭이 크지 않아 상대매력도 감소	20.01.10	20.03.18
비자	V	코로나 19로 해외 여행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감소	20.01.10	20.03.18
알파벳	GOOGL	미국, 유럽 반독점 조사 확대로 단기적 불확실성 확대	20.01.10	20.03.18
월트디즈니	DIS	디즈니랜드 폐쇄 및 영화관 매출 감소	20.01.10	20.03.18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UNH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용 증가	20.01.10	20.03.18
애플	AAPL	코로나 여파로 인한 하드웨어 매출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20.03.18	20.05.01
아마존	AMZN	차익실현	20.01.10	20.07.06
록히드마틴	LMT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예산 집행으로 국방 예산이 일부 축소될 가능성	20.03.18	20.07.06
머크	MRK	차익실현	20.03.18	20.07.06
펩시코	PEP	상승 모멘텀 부재	20.03.18	20.07.06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장기전략리서치부 선진국팀)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